

# 출판계는 산업재해에서 자유로운가

##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출판계 인식 달라져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흔히 산업재해라고 하면 제조업이나 광업 등의 분야에서 작업환경의 부실로 일어나는 부상이나 그로 인한 질병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요즘은 사고를 제외한 업무상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그 파장은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들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출판사의 편집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출판계도 산업재해의 자장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 출판사 편집자가 산업재해 판정 받아

최근 한울림에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한 편집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것. 산재판정을 받은 편집자는 한울림에서만 3년, 출판계에서 10여년 동안 일해온 중간 관리자다. 그는 유아영어 관련 기획물을 전담하면서 지난 3월말부터 두 권의 신간을 기획해왔다. 특히 4월부터는 영어책 출간시기를 맞추기 위해 지은이와의 미팅, 원고교정, 회화 테이프 녹음, 외국 회사와의 그림저작권 사용허가 작업 등을 동시에 진행해 잦은 야간작업과 밤샘근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주한 대표는 “평소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땀 사원이다. 이번 신간을 진행할 때도 주기적으로 편두통과 빈혈증세를 보여 무리하지 말라고 충고도 했다. 하지만 일을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고, 결국 건강이 악화됐다”고 말한다.

그 후 편집자는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밀진단을 통해 ‘만성피로증후군’이란 진단

을 받았다. 이 편집자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6개월 동안 휴업급여를 받으며 요양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6개월 휴업기간 동안 통원치료에 따른 치료비와 재해발생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이번 판정을 통해 출판계도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복지공단 이창희 대리는 “만성피로증후군이 그리 흔한 질병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판례를 통해 인정하는 추세다. 과로와 스트레스관련 질병은 의학적인 검증을 거쳐 업무로 인한 발병원인을 입증하면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대리는 또 “산재보험이 지난해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근로자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며 근로자가 원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강조한다.

### 영세사업장에서 산재환자 급증해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산업재해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7%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고를 제외한 업무상 질환자는 2천 6백여명에 이른다. 이 같은 수치가 비단 출판계만 비껴가겠는가.

이번 일은 출판계에 두 가지 과제를 던진다. 먼저 출판계가 그동안 산업재해에 대해 무지했거나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울림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이번에 편집자가 산재판정을 받은 데는 편집자의 변호사 친구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도와줬다고 한다. 송대표는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면서도 적용방법을 잘

몰랐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다”고 말한다.

사업주들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다.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77만여 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70%에 그치고 있다. 미가입사업장이 대부분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다. 더욱이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올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보다 무려 231.6% 급증한 7,346명이다. 출판계의 환경이 대부분 열악해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엔 산재환자의 양적인 증가는 물론, 산재유형 또한 다양화하고 있다. 새한노무사사무소 이승재 노무사는 “컴퓨터 사용의 급증으로 손목, 어깨, 허리통증, 시력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병을 촉진시키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도 크게 늘었다”고 말한다.

또 하나의 과제는 이미 출판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과중한 업무다. 출판계에서 3년 동안 일해온 한 편집자는 “신생출판사라 입사 초기는 11시나 12시까지 야근을 했다. 6개월 넘게 밤샘작업과 야근이 이어진 적도 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연장근무를 강요한 건 아니지만, 신간 출간일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박옥순기자

